

90년대 석유산업의 좌표와 진로

- 대한석유협회 홍보실 -

90년대를 맞아 정유업계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석유수요의 증가에 따른 안정공급기반의 확충과 석유수요구조의 경질화·가스화·저유황화에 따른 시설고도화가 당면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유산업 허용이익의 절대규모부족과 걱정이운 미실현은 성장발전의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또 현행유가관리제도도 개선·보완 내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이에 석유협회에서는 설문문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註〉

설문

- 1 90년대 국제석유사정은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십니까?
- 2 90년대에 국내석유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3 현재 정유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 현행 유가관리제도의 개선·보완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5 소비자의 욕구가 점차 높아지고 또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하에서 정유산업이 대처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6 석유산업의 자율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7 석유산업의 장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安 柄 勳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1 완만한 상승이 기대된다. 최근의 빠른 석유수요증가로 원유가 인상은 필연적이거나, 원유수출국 입장에서는 과거와 같은 충격적 인상을 피하는 전략을 택할 것이기 때문에, 완만하나 꾸준한 상승이 기대된다. 이러한 원유시장 특성에 대비한 전략수립이 요구된다.

최근 세계각국이 우려하고 있는 지구온실효과와 이에 대응한 CO₂ 방출 감축 움직임이 국제석유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신중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

2 국제화와 자율화라고 본다. 국내석유산업은 이미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시작한 바 있으나, 아직도 갈길이 멀다. 나머지 사항은 다음 항목들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3 정유산업 그 자체에의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본다. 경영환경이나 시장, 정부규제상의 문제점이 더 크다고 본다.

4 유가관리제도는 유통구조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유통구조는 가격민감도가 너무 높아 가격자율화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유통구조에서 소비자와 정유업간의 간격(유통 단계상)을 줄이고, 가격은 모두 자율화되되, 단 현재의 사후정산제도의 기본골격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를 붙인다. 현재는 사전적 유가 관리와 사후적 이윤규제가 중복적

으로 부과되고 있어, 경쟁을 통한 석유산업 체질강화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5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는 정유산업 뿐 아니라 모든 생산부문이 당면한 과제이다. 제품수명 주기의 감소, 용도의 다양화, 고품질요구, 환경요인의 부상 등에 대비해서, 제반 산업종은 설비의 유연화, 자동화, 품질의 다양화, 적시생산체제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유산업은 뒤쳐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정부의 보호하에 재래식 생산체제로서 버틸 수 있었던 유리한 상황에 있었다고도 보겠다. 이제는 제품규격의 자율화, 신제품개발, 이에 따른 적시생산(JIT)체제 도입등 생산부문의 현대화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하겠다. 탈황, 중질유 분해 설비 등의 전략적 차원에서 적정규모의 도입이 요구된다.

6 자율화는 국내경제의 일 반적 추세이기에, 자율화의 추진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보다도 성공적인 자율화 추진을 위한 여건조성과 단계적 추진의 일정선택이 정책 변수가 되겠다. 여건조성을 위해서는 무엇이 자율화추진에 걸림돌인가를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 분야만큼은 과점산업의 규제 이론차원의 심도있는 연구와 자율화 평가 모형 도입적용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7 이미 최근에 보여졌듯이, 금세기말까지 석유는 우리나라의 주종에너지로서의 위치를 지켜나갈 것이다. 그러나 보다 더 장기적으로 본 21세기 에너지시스템 차원에서 보면, 석유는 Noble Use 시장으로 국한되고, 가스·원자력 등 여러 에너지의 몫이 커질 것인 바, 민간기업으로서의 기동력을 감안하여 석유산업은 이들 여타 에너지까지 포함하는 종합에너지 회사로 발돋움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앞으로는 환경문제를 제약 요인으로 받아들이지만 말고, 석유산업 스스로가 환경/공해 산업에도 참여하는 적극성이 요구되고, 아마도 이 방법이 석유산업 자체의 건실한 성장도 가능케 할 것으로 보인다.

韓 珍 鉉 (동력자원부 석유정책과 행정사무관)

1 우선 지난 10년간의 국제석유시장 변화를 개괄해 보면, '70년대 말에 시작된 제2차 석유위기의 영향으로 '80년대 초반에는 국제원유가격이

배럴당 34달러 수준을 상회하는 고유가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에는 OPEC 회원국간의 내부갈등 등으로 인해 국제석유시황은 약세기조로 반

전 '86년에는 배럴당 8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는 기현상이 야기되었으나, '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OPEC회원국간의 공조체제 유지 등으로 국제원유가는 점차 배럴당 18달러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다.

또한 OPEC의 공시가 배럴당 18달러에 대한 개념도 당초 목표유가로 책정되었던 것이 '89. 6월에는 기준유가(Reference Price), '89. 12월에는 최저기준유가(Minimum Reference Price)로 변화하여 실질적인 油價상승의지를 보임에 따라, 향후 세계 석유정세를 가늠케 하고 있다.

'90년대 국제석유사정은 세계 석유수요의 지속적인 증가세에 따른 OPEC의 공급점유율 상승으로 불안정성이 고조될 전망이다. 동구권의 개방으로 장차 경제발전정책 추진이 가속화됨에 따라 석유수요가 크게 늘어날 OPEC 원유의 수요가 증가될 경우, 그동안 OPEC 회원국간의 내부 갈등 원인으로 되어 왔던 생산쿼타가 저절로 해결되고, 회원국간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상호협조 분위기가 확산되어 OPEC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시 '90년대의 국제 석유시황은 油價의 급등현상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2 '90년대의 국내석유산업 과제를 생각하기에 앞서, 국내 석유소비 패턴을 살펴보면 우선 그동안 석유소비의 양적 팽창이 가속화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86년 이후의 국

내유가 인하 및 경제성장에 따른 국민경제 확대등으로 매년 10% 이상의 높은 수요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석유수요의 증가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만큼 앞으로 석유산업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우선 안정공급기반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국내 石油소비는 이러한 양적증가 이외에도 석유수요의 경질화, 가스화, 저유황화 등 구조변화현상을 수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석유제품의 경질화율은 1988년의 66.4%에서 오는 '94년 72.4%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 등에 따라 수송 및 가정부문이 향후 석유수요 증가세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석유수요의 경질화 이외에도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환경개선노력에 부응한 저유황유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石油수요의 경질화, 저유황화 패턴을 감안할때 국내 석유산업은 과거의 수동적인 대응자세에서 탈피하여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요청되는 만큼 중질유 분해시설, 탈황시설 등 시설고도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石油소비 구조측면 이외에도 소비자들의 에너지에 대한 인식 및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소비자 지향적인 서비스의 제고 노력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3 최근의 지자제실시와 석유화학산업의 부산물(석유제품)생산증가, 그리고 경제다원화 등에 따라 나타난 개방화, 자율화 욕구증대 등에 따라 석유산업 관련제도 개편 요구가 앞으로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제도개편과 관련하여 현 정유산업이 안고 있는 현안과제는 공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정유산업의 산업 경쟁력 확보 노력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나 우선 석유소비패턴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중질유분해 및 탈황시설 등 설비고도화 투자의 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다. 여기에는 중장기적인 국내의 유가 및 수급전망, 투자부담에 대한 리스크, 소요자금의 안정조달 및 재무안정성 등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수반되는 만큼 종합적인 분석, 평가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설비고도화 투자이외에도 소요석유의 안정확보를 위한 유전개발 등 상류부문의 확대노력 등이 절실히 요청된다. 또한 정유산업의 균형발전 및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각 정유사의 경제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정제시설의 단위경제규모 확보 등이 필요할 것이다.

4 현행 油價관리제도는 석유의 안정되고 저렴한 공급을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정부의 최고판매가격 고시제도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가격규제로 정유사의

독과점 체제하에서 가격 부당인상을 방지하고, 소비지정제주의를 기조로 한 수출입 규제로 석유수급 안정 및 국내 정유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가격조정의 경직성으로 장기적 가격안정 및 경제자율성을 저해하고, 민간기업 손익에 대한 정부의 직접개입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油價관리제도 개선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하나는 유종간의 가격구조문제와 유가자율화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먼저 유종간의 가격구조는 '86년 이후 유가조정시마다 국내유가구조의 국제화를 추진해 온 결과 국내유가구조는 거의 근접되어 왔다. 그러나 일시적, 계절적 요인으로 인하여 국제가격의 불안정으로 나타난 일부 유종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괴리현상은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문제이다. 예를 들어,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저유황유의 공급 확대를 위하여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가격격차를 국제수준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油價 자율화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가격자율화율이 20%수준이나, 과점시장하에서도 가격안정요인이 없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모두 협상능력을 갖추고 있는 일부 유종에 대한 가격자율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종별 가격자율화 이외에도 국내유가관리방식, 예를

들면 환율연동제, 국제유가연동제 등의 도입을 통한 관리기준의 방식 등이 석유산업의 규제합리화와 연계되어 점차 도입, 확대하는 문제가 검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에너지수요패턴도 사용의 편의성과 청정성 등 이른바 고급 에너지를 선호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수송·가정부분의 수요증대에 따른 LPG 휘발유 등 경질유 소비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환경문제, 안전 및 품질기준의 강화 등 소비자측으로부터의 다양한 욕구표출이 전망된다.

이러한 여건 변화에 부응, 정유산업의 소비자 지향적 서비스 제고를 위하여는 현행 석유제품의 품질관리 이외에도 유류사용기기의 고급화, 다기능화 추세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개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유산업의 석유품질 개선 문제는 소비자의 요구품질 수준과 이에 따른 경제성의 조화문제로 귀결되는 만큼 석유수요의 합리적인 관리측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석유제품의 품질개선 노력 이외에도 공급자와 소비자간 신뢰 강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정유산업의 경영합리화 노력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돌아가고, 소비자 역시 어떤 석유제품이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풍토조성이 아쉬운 만큼, 이에 대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이다.

6 국민경제 규모의 확대와 경제구조의 다원화에 따라 그동안 여러분야에서 정부 규제위주 정책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경제는 경제민주화라는 새로운 구조전환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석유산업도 예외없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석유분야에 관한 한 무분별한 자율화, 개방화 추진 주장은 곤란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국민경제의 소요석유를 전량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인 취약성 이외에도 국제시장의 주기적 파동성 및 불확실성에 대처해야 한다는 에너지 안보(Security)의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시급한 점은 기존 정유사를 통하여 공급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유전개발 등 상류부문 진출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석유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주유소 허가제, 정제업자의 유통부문 참여제한 등에 대한 단계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경쟁효과가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전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석유산업의 자율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7 석유소비패턴의 변화 등 석유내적요인 이외에도 최근의 지자제 실시 등에 따른 경제분권화의 요구증대 등에 따라 석유산업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

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석유 산업의 미래상은 현재의 정제판매에 국한된 사업영위가 아닌 석유개발 등 상·하류 부문으로의 진출 등을 통한 석유사업의

수직적통합 이외에도 석탄,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에너지 분야까지 사업영역이 확대된 종합에너지산업으로의 도약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보를 위한 해외유전개발사업 및 대체에너지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석유수요 증가에 따른 유류수송물량의 급격한 증가에 대비하여 장거리송유관사업 등을 통한 수송수단의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과거 정부주도에 의한 石油정책하에서의 피동적인 경영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에 의한 책임경영체제가 정착되도록 하는 한편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건전한 경쟁풍토를 조성해야 하며, 이와함께 油價자율화 등 석유산업 자율화조치를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공해 석유제품개발을 위한 R&D 및 시설투자 확대와 청정연료 보급확대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 및 소비자권의 보호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3 현재 국내 정유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허용이익의 절대규모 부족 및 적정이익 미실현에 따른 성장계약이라 아니할 수 없다.

즉, 현재 정부에서는 정유사의 허용이익을 정유부문 자기자본의 세전 16.5% 수준으로 설정해 놓고 있지만, 이같은 허용이익 수준은 주주에 대한 배당,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사내유보 및 재투자재원의 확보 등 기업경영활동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이익수준에 크게 미달될 뿐 아니라, 정부의 비용부인 등

南 命 福 (油公 업무부장)

1 '90년대 국제석유정세에 대한 예측은 곧 원유가격의 변화에 대한 예측이며, 국제석유시장에서 원유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세계 경제성장률 및 석유수요 증가율, OPEC 및 非OPEC의 공급능력, 산유국 및 소비국의 에너지정책방향, OPEC의 결속여부 등 제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국제 석유전문기관들은 '90년대에는 세계 석유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OPEC의 생산증가 非OPEC의 생산감소에 따른 OPEC의존도 심화 등으로 국제원유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그 시기 및 상승폭에 대해서 다소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90년대 초반기에는 배럴당 18~20달러 수준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며, 중반기에 22~25달러 수준으로 상승한 후, 후반기에는 25~30달러의 고유가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석유전문가들이 현재의 세계 石油수요 증가로 볼 때 머지않아 제3의 석유위기가 도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지난해 연말부터 국제원유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벌써부터 저유가시대가 막을 내리고 고유가시대가 도래하지 않느냐는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국내 정유업계는 유사시 석유위기에 대비하여 산유국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원유비축증대 등 대응책 마련에 한치의 방심도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2 급변하는 국내의 여건하에서 석유산업이 '90년대에 해결해야 할 과제는 먼저, 석유산업의 최우선과제라 할 수 있는 국내 석유제품의 低價·안정공급 책임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석유수요 증가에 따른 공급능력 확보를 위한 석유정제시설의 증설 및 석유수요구조의 급격한 경질·저유황화에 대처키 위한 중질유분해·탈황시설 등 고도화 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는 한편 장기 안정적인 원유공급확

으로 인해 정유사의 실제이익률은 허용이익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국내 정유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상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타산업 및 대표기업과는 반대로 성장이 크게 저해되고 있다.

또한, 정유업계는 국내 석유제품의 안정공급을 위하여 석유정제시설 증설, 고도화시설 건설 및 장거리송유관건설 등 2조원이 넘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나, 상기한 이유로 인해 투자재원의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한계가 있음을 감안할 때, 설비자금에 대한 여신규제 완화, 기금지원 등 투자비 조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4 현행 국내 유가관리제도 중 개선 또는 보완해야 할 사항은 크게 아래의 3가지 사항으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허용이윤의 개념재정립으로 앞서 지적했듯이, 정유업계는 허용이익규모가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인데다가 정부가 자의적으로 일부비용을 부인함으로써 허용이익조차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유업계가 적정이익의 실현을 통해 자력성장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이윤의 개념재정립 및 허용이윤 산정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의 정유사이익 직접관리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구미 선진국은 물론 국내 여타

산업의 경우에도 정부가 민간기업의 이익수준을 직접 관리하는 것은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과거 석유산업의 태동기에는 국가 기간산업에의 주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부의 보호 육성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이러한 정부의 직접개입이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경영활동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나친 과보호, 특혜부여 등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정유사이익관리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油價정산제도를 하루빨리 폐지함으로써 정유업계에도 자기책임하의 자율경영풍토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油價관리운동을 합리적으로 객관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간 정부의 유가관리운동을 볼 때 석유정책수행상 불가피하다는 명분하에 자의적 판단에 따라 정유사의 실발생비용을 전액 인정치 않았을 뿐 아니라, 비용 및 수익의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지 않는 등 비합리적인 油價관리운영으로 인해 정유사의 경영활동을 크게 저해해 왔다. 따라서 향후 유가관리운영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의적 요소들을 배제하여 모든 수익 및 비용발생분이 전액 유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표준원가제도 도입 등을 통한 유가산정/조정방식의 합리적 설정 및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 등 油價관리운동을 합리적으로 객관화하기 위한 대책수

립이 필요하다.

5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더불어 일반국민들의 의식수준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러 소비자보호운동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석유제품 소비자들도 유황 등 공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사용하는 석유제품에 대해 알 권리 등을 주장하며 소비자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표출에 대하여 정유산업이 대처해야 할 방향은 우선,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 역시 환경보전에 앞장서겠다는 기업관을 확립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R&D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석유제품에 함유된 유황 등 공해물질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한편 초저유황유 등 청정연료의 개발 및 보급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Pole Sign제도의 도입 등 유통구조의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여 철저한 품질관리는 물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 등 소비자 지향적인 마케팅 활동을 적극 수행해야 할 것이다.

6 최근의 정치,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에서의 민주화 열풍과 케를 같이 하여 석유산업분야에서도 자율화에 대한 욕구 및 제반의견들이 표출됨에 따라 정부 및 업계내에서 자율

화 추진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화 논의들이 석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요구 및 의견제시에 그쳐서는 안되며,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정부정책 및 기업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유업계 공동의 노력이 물론 정부의 강력한 자율화 추진의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석유산업이 지향해야 할 자율화의 기본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제도개선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를 위해 점진적, 단계적 자율화 추진

둘째, 현재까지의 정부 직접관리체에서 민간기업의 책임경영에 따른 자율조정체제로 전환

셋째, 적정수준의 이익실현을

통한 자력성장기반 조성

넷째,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건전한 경쟁풍토 정착

7 석유산업은 국내 총에너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주에너지원인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 국가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원전 및 대체에너지의 개발 등으로 석유의존도가 다소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주에너지원으로서의 石油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감소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석유산업이 앞서 밝힌 바 있는 과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과감히 추진함으로써 석유제품의 저가 안정공급 책임을 수행하는 한편, 급변하는 국내의 여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다각화 및 국제화전략을 과감히 추진하는 등 경영합리화를 위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국가경제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성장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확보와 현물시장 등을 활용한 저가원유의 구입이 필수적이다.

또한 石油수요의 저유황·경질화 추세에 맞추어 탈황 및 중질유 분해시설 등 고도화 사업투자가 요구되며 수요의 절대량 증대에 따른 생산능력 자체의 확충도 불가피하다.

3 투자재원의 확보가 우선적인 문제이다.

石油수요는 점차 저유황·경질화 추세에 있어 고도화설비의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제품가격을 고시하면서 자기자본의 약 10%의 이윤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금융기관 이자율에도 하회하는 수준으로 주주에 대한 배당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한 이는 명목상일 뿐이지 실제로는 발생비용의 일부를 인정치 않아 허용이윤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상황이다. 이러한 유가관리체계 하에서는 새로운 투자를 위한 재원마련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이다.

또한 가장 경제적인 계획생산 및 계극판매를 위해서는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망의 직접적인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3.14 조정명령이 조속히 해제되어야 한다. 아울러 상표표시제를 시행하여 품질을 보장하고 서비스를 증대하여 소비자 보호에도 앞장서야 한다.

4 정유산업은 공공성이 매우 크다고 하나 자구노력, 경영합리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도 정부가 회수해 가는 것은 사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李 相 秀 (湖南精油 업무부장)

1 '80년대 후반부터 안정세를 보여 왔으나, '89년말부터 原油가격이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이는 일시적 상황변동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수도 있으나, 머지 않은 장래에 고유가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조짐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여러 석유 분석가 및 전문가들이 '90년대 초·중반에 제3의 석유위

기를 예측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으로 본다.

2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정유산업의 기본과제는 안정되고 저렴한 석유제품의 공급이다. 제품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유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싸게 구입하느냐가 관건이다. 즉 원유도입선의 안정적

지나친 간섭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유가 사후정산제를 폐지하여 일정한 기준하에서의 기업의 경영성과는 개별기업이 향유토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기업내부에 축적된 이윤은 향후 재투자재원으로 활용되어 중국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유가관리등 사전관리는 지속하되 사후정산은 폐지하여야 한다.

또한 油價관리제도는 더욱 합리적, 객관화되어야 하며, 계속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기업은 현재의 제도를 바탕으로 장래를 예측하여 경영을 하므로 갑작스런 제도변경은 기업경영에 큰 타격을 주게 되고 이 역시 결국 소비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5 세계적으로는 原油의 질은 점차 중질·고유황화되고 있으나, 석유수요는 이와는 반대로 경질·저유황화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탈황시설, 중질유 분해시설 등 고도화설비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며 품질의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에 대한 제품의 사용법을 홍보할 필요가 절실하다. 지난해 겨울의 등유파동이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경유를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에 열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가격도 비싼 등유를 사용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이다. 따라서 자원의 낭비를 막고 수급의 안정에

도 기여할 수 있는 홍보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6 사회적 분위기로 보아서 는 정유산업도 급속한 자율화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石油를 단순한 상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시행착오를 전제로 한 졸속한 자율화 추진보다는 상당한 기간 심사숙고하며 신중을 기하면서 점진적으로 자율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7 오래전부터 정유업은 사양산업이라고 해 왔으나,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소비지정

제주의를 그 정책의 기저로 삼고 있고 석유자원이 고갈되기 전까지는 석유가 역시 기초에너지의 주종을 이룰 것이므로 장래가 어둡다고 할 수 없으며 사양산업이라고도 보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 유전개발, 석유화학, 대체에너지 등 관련 산업부문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사업부문을 다양화하고 있고 아울러 향후에는 제품의 단순한 생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통부문에도 직접 참여하여 2차 및 3차 산업의 복합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망업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姜斗植 (京仁에너지 업무부장)

1 '80년대의 석유시장이 과잉공급, OPEC 시장 지배력 약화 등으로 대변되는 유가하락시대였다면, '90년대에는 수요증대, OPEC 지배력 강화 등이 이루어져 '70년대와 같은 고유가시대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가운데, 이런 사태가 발생할 소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 각국의 경제성장률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석유수요의 증가추세는 지속되어 갈 것이며, 또한 최근의 동구권 자유화물결로 인한 자국의 경제개발 추진으로 인한 석유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非OPEC의 공급 증대는 한계에 이르러 필연적으로 OPEC의 생산량 증

대 노력을 유발시키게 될 것으로 여겨진다.

여러 관계기관에서 내놓고 있는 예측 수치를 볼 때, 2천년에 자유세계 석유소비량은 5,300만B/D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어지며, 이 석유수요의 OPEC 의존 비율이 53~55%까지 점할 것으로 보여 '90년대의 유가 상승 분위기는 성숙될 것으로 보인다.

2 '90년대의 국내석유산업이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몇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국제화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90년대에는 석유산업도 필연적

으로 개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국내 정유사들의 과감한 체질 변화를 통한 경영개선과 아울러 상류부문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완전한 수직 결합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국내 석유산업의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석유산업은 원유공급을 해외에만 의존하여야 한다는 취약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책의 일환으로 정제업 뿐만 아닌 대체에너지개발 등과 같은 종합에너지 산업으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국내석유산업의 사업다각화 일환으로써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셋째,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고유황유의 대기오염 제품을 보다 저유황화시키는 노력과 투자를 확대,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3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 수요의 증가에 대비한 정제시설의 확충과 제품의 경질화, 고급화에 따른 시설고도화 사업에 드는 막대한 투자재원 마련이 큰 난제이다.

덧붙여 장거리 송유관 건설까지 포함한다면 약 2조원의 투자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정유산업의 저 수익성으로 인하여 자체

재원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원유의 장기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해외유전개발의 추진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거액의 자금이 드는 사업이다. 이는 개방화 국제화 시대를 대비한 경쟁력 제고와 종합석유회사로의 변신에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여 나갈 과제로서 상충하는 어려움이 있는 과제이다.

4 현행 油價관리제도는 유종별, 공급단계별 최고 판매가격 고시제도와 유가반영 원가와 실 발생원가의 차이를 석유사업기금으로 징수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내 유가의 안정과 석유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 바가 크지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유종별 고시가격은 산업정책적, 인위적 결정으로 유종간 가격왜곡 현상을 초래하고 있어 시장 기능에 의해 석유가격이 결정되도록 단계적으로 자율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금제도도 원래의 설치 목적에 필요한 일정 소액의 기금만 징수하고 원유가, 환율 혹은 관련 경제 변수의 변동에 의한 조정 요인은 가능한 한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유도입가와 환율 변동에 따른 일원적, 기계적 기금징수를 지양하고 기금외 기능(유가안정, 석유위기시 대비)에 부합하도록 징수해야 할 것이다.

5 석유소비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소비구조변화 역시 가속화 될 전망이다. 수요의 경질화, 저유황화, 가스화 등 소비 구조변화 현상은 계속 심화되고 있으며, 환경문제, 안전 및 품질기준의 강화 등에 대하여 소비자 측은 더욱 다양한 욕구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정유사는 공급안정 측면과 함께 앞으로는 제품의 질적 측면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즉 시설고도화사업, 송유관사업, 유통구조의 개선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욕구에 앞서가는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이다.

6 정치, 경제적 민주화 추세는 석유산업의 자율화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요 석유의 100%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적 취약성과 국제석유시장의 불확실성 등은 석유산업에 관련한 무분별한 자율화, 개방화 추진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존 정유사를 통한 공급의 효율성 극대화와 국제 경쟁력 배양이 선행되는 가운데 단계적인 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7 美國이나 日本과 같은 선진국의 경우 개인당 石油소비량이 계속 감소하는 가운데 정유산업이 사양화되고 있다고 하나, 우리의 상황은 다르다고 본다.

우리의 석유소비 증가 추세는

2020년 정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우리 경제가 이제 개도국의 수준을 막 벗어나려는 단계로서 보다 많은 석유소비를 요구하는 실정이며 생활수준의 향상과 관련한 수송 부문에서의 석유소비는 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이익규제 제도의 개선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자율화, 국제화된다면 국내정유산업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타나고 있어 소요재원의 확보가 큰 난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정유산업에 대한 허용이익률의 저수준유지에 기인하며 이로 인한 기업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정유산업이 석유제품의 안정공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개선 이외에 막대한 시설투자에 대한 금융·세계상의 지원강화, 정유산업에 대한 허용이익률의 제고 등 제도적인 지원책이 긴요한 실정이다.

그동안 국내정유업계는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 정제사업에만 의존해왔으나, 석유산업의 성장한계를 감안할 때 기업의 장기적인 안정성과 존속을 위하여는 일대변신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90년대 국제석유시장 및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 기존 정제업을 모체로 하여 상하류부문에의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석유대체에너지 개발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종합에너지산업 또는 종합화학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성장을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석유화학 등 하류 부문에 대한 사업확대는 사업의 유사성과 계열화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석유정제에서 최종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계열화를 통한 원가절감이 가능하므로 국제경쟁력 향상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류부문 진출 방안으로는 국내외 유전개발 등 산업분야에 해당된다고 볼 수

金 東 哲 (雙龍精油 업무부장)

1 중장기 石油시장전망의 기본요소는 수요·공급 및 시장구조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세계경제성장, OPEC의 행동, 石油소비절약, 石油대체에너지개발, 非OPEC의 원유생산, 공산권의 원유수출, 중동의 정치적 상황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요소를 토대로 주요전문기관은 '90년대 중반까지 세계石油수요는 연평균 2% 수준으로 늘어나는 반면 非OPEC의 원유생산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세계의 OPEC의 존도가 점차 증가하여 '95년경에는 공급비율이 약 50%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OPEC의 가격결정력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공급구조의 변화로 원유가의 불안정성 확대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과거 두차례의 석유위기사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OPEC가 '80년대 공급 과잉상태에서 가

격유지를 위해 역경을 겪어왔던 점에 비추어 볼때 '70년대식의 가격폭등은 예상되지 않는다.

결국 原油가격은 향후 2~3년의 조정기를 거친 후 상승추세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90년대 중반이후에는 배럴당 25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므로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또 한차례의 세계석유수급 불안이 예상된다.

2 국내정유산업은 石油수요의 양적 증가는 물론 수요구조의 경질화·고급화 및 저유황화 추세 등에 따른 石油의 안정공급기반 확보가 1차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유 5사는 원유정제시설의 증설과 함께 증질유분해·탈황시설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석유제품 수송수단의 한계에 따른 수송체제 개선을 위하여 장거리 송유관 건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투자사업에 2조원 이상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석유위기에 대비한 안정적인 원유 확보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中東 OPEC 산유국과의 장기적인 유대강화를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원유도입이 가능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국내정유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유사간의 균형적인 발전의 도모를 들 수 있다. 최근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각 분야별로 자율화·개방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石油분야의 경우도 자율화 논의가 일고 있으나, 100% 해외의존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과 국제석유시장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시 무분별한 자율화보다는 단계적인 규제완화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지배적 의견이다. 따라서 기존 정유사를 통한 공급효율성의 제고 및 국제경쟁력의 강화가 석유정책 과제이다. 그동안 국내석유정책은 석유제품의 수급 및 가격안정과 석유산업의 합리적육성을 목표로 소비자정제주의의 기초하에 정부통제관리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정책수단으로 각종 인허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 정유산업은 선발대형사와 후발 소형사로 크게 구분돼 왔으며, 후발 소형사의 경우 정제능력의 한계 및 각종 인허가제도로 인하여 상대적인 불이익이 없지 않았으나, 이에 정부는 이들 3社에 10만B/D 규모의 증설을 허가함으로써 정유산업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석유정책의 기초가 소비자정제주의에 있는 이상 국내 정유산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 석유시장구조가 공급능력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여건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뒷받침됨으로써 기존 공급체제의 효율성 제고 및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통해 석유산업의 자율화시대를 맞이하여야 할 것이다.

4 우선 현재 매년 실시하고 있는 油價정산제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油價정산제를 폐지하기 위한 선결과제로는 油價관리대상범위를 줄여 가격자율화 유종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가연동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완전 가격자율화는 정책의 리스크 때문에 쉽게 선택되기 어려우므로 일부 유종에 대한 국제가연동제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를 실천하려면 많은 연구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 같다. 지금까지의 原價합산방법과는 달리 국제시세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보다 진일보된 방법일 것이다. 정유산업이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승패가 날 뿐 아니라, 유종간 가격구조도 자연스럽게 국제구조로 접근하므로 이상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重質油분해시설 등 막대한 2차 처리시설의 가동과

함께 이제 원가관리는 한계에 온 상태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석유사업기금조정의 운영방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매월 기금이 조정되고 있는데, 그 조정시점이 매우 불규칙한 실정으로 어떤 달은 29일만에, 또 어떤 달은 35일만에 기금이 조정되는 등 임의성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는 하나의 석유정책제도로서 보다는 편의성에 의해 제도가 운영되는 느낌이 든다. 따라서 매월 일정한 일자에 기금이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5 정유산업도 소비자입장에서서 품질 및 서비스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 고 본다. 그렇지만 기업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제도 및 여건이 기업간 경쟁을 어렵게 하고 있어 석유제품의 품질경쟁이라든지 주유소 서비스개선 등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로는 석유판매업이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허가만 받으면 장사가 저절로 되고, 소비자는 석유판매업소를 선택할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 품질이나 서비스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유통망에 대한 허가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연하면,

품질과 그 대가에 대한 인식에 관한 사항이다. 품질을 개선하고 품종을 다양화하고 서비스개선을 한다면 좋다고 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 지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저유황유 공급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루지만 고유황유가격보다 비싸야 한다는 데에는 그만 거부현상이 일어난다. 품질 좋고 무공해한 제품에 대하여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원리를 이제 받아들이야 할 때인것 같다.

이렇게 제도와 여건이 갖추어져 동기부여를 한다면 정유산업도 기업원리상 소비자 욕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되며 결국 품질과 서비스개선에 매진하게 될 것이다.

6 그동안 규제 일변도로 이끌어온 석유산업에 대한 통계를 과연 풀어야 하는 것인지, 풀다면 어떻게 풀어야 좋은 것인지 그동안 많은 협의가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율화한다는 구도만 정립된 것 같다.

석유산업의 자율화대상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해 보겠다. 첫째 정제업에 대한 자유화, 둘째 정제시설설치자유화, 셋째 석유수출입자유화, 넷째 石油판매업 자유화이다. 우선 정제업에 대하여 살펴보면, 현재 5개정유사에 의해 영위되고 있는데, 외국 의 경우(日本은 10개 회사)로 보나 국내 타산업의 경우(장차 산업의 경우 많아야 2개-3개

회사)로 보나 오히려 조금 많은 듯 하다. 정제업에 대한 자유화를 위해서는 기존 정유사들의 자생력을 배양시켜 국제경쟁력 강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정제시설 설치자유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다. 5개 정유회사가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마음껏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설치자유화가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정부가 시설설치의 결과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이다.

다음으로 석유제품 수출입자유화문제이다. 石油의 연산성과 석유자원의 완전 해외의존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석유제품 수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정유업계의 효율적 자원선택을 불가능하게 하여 자원낭비를 유발시킬 것이 분명하며 제품별 수급의 혼란과 소비지정제주의 기초붕괴에 따른 공급안정성저하를 유발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와 처지가 유사한 日本의 경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보수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끝으로 석유판매업의 자유화 문제인데 이 문제야말로 석유산업 자율화과제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기업의 기능은 가공할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기능은 소비자와의 만남, 그 마케팅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 바, 마케팅활동의 제

한은 기업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그러면 정유회사의 마케팅활동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소비자와 생산자의 연결고리인 유통경로를 정유사로부터 차단하고 있는 석유판매업에 대한 허가제도인 것이다. 따라서 석유판매업의 허가제는 마땅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7 현재 나와 있는 석유대체재들과 비교해 볼 때, 石油은 연료로서의 기능측면에서는 이동가능성(PORTABILITY)과 원료(FEED)로서의 압도적 기능 때문에 새로운 대체재의 등장까지는 상당기간 시간이 경과할 것임에 틀림 없다. 따라서 대체재 등장에 의한 석유산업의 몰락은 하나의 이론일 수는 있지만, 쉽게 실현되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안정적인 석유시장을 바탕으로 다각화전략을 펼쳐나간다면 종합에너지, 종합화학산업으로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전개발 등 상류부문 분야와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분야 등 하류부문 쪽으로 진출이 가능하므로 얼마든지 다각화 전략에 의한 성장이 가능하리라 본다.

더구나 최근 석유제품시장의 구조변화(수요구조의 경질화/저유황화/품질의 고급화)를 겪으면서 이제 석유산업은 제한된 자원의 최대활용이라는 새로운 과제의 등장을 맞게 되었다. 2차처리시설은 투자규모도 방대하지만 높은 부가가치창출과 기술집약성을 근본으로 하는 첨단

있다. 이 시기를 겪게되면 석유 산업은 규모화에 따른 자본력과 기술력을 축적할 수 있게 될

것인 바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전혀 배제할 수 없음을 감안할 때 이에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 하다 하겠다.

金 明 培 (極東精油 이사)

1 '90년대의 석유시황은 어찌면 '70년대~'80년대에 걸쳐 나타난 국제석유상황을 감안하여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 싶다. 과거 우리는 '70년대에는 油價 폭등으로 인한 석유위기를 그리고 '80년대에는 유가폭락으로 인해 야기된 逆 오일쇼크를 경험하였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현상이 단기간에 나타나게 된 요인은 정치, 군사적 요인과 자원민족주의라는 비경제적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역사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수요와 공급의 경제적 요인이라 할 수 있겠다. 즉 '70년대 초까지 국제석유시장은 메이저들의 카르텔에 의한 인위적 저유가 정책으로 수요의 지속적 증가가 주된 현상이었으며, 이것이 때맞춰 발발한 중동전쟁과 급속히 팽창한 자원민족주의의 반발에 의해 고유가 현상으로 표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유가 정책은 소비국들의 수요감소와 대체 에너지 개발 의욕을 배가시켰고, OPEC의 공급과잉과 공시가 제도의 무리한 지탱은 가격전쟁을 유발시켜 결국은 油價폭락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두가지 전례를 비

추어 볼 때 향후의 석유시장은 단기간내에 폭락이나 폭등이라는 급격한 상태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90년대에도 약 3% 정도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石油수요도 매년 2% 정도의 증가를 보여 현재 5,100만B/D에서 2000년에는 5,800만B/D에 달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石油수요의 증가는 전세계 매장량의 84%를 점하고 있는 OPEC의 시장점유율을 '88년 현재 46%에서 2000년에는 54%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되며, 원유가격도 '95년에는 25배럴 수준으로 그리고 2000년에는 30배럴 수준으로 점차 상승하리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OPEC의 생산수준이 그들이 보유한 최대 생산능력의 80%가 가동되는 시점에서 유가가 폭등했었다는 전례에 비추어 OPEC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향후의 유가에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며, 또한 석유시황이 경제외적 요인에 의하여 경제외적 요인에 의한 변동을 배가시킨 전례로 보아 급등할 가능성은

2 '90년대를 맞으며 석유업계가 대처해야 할 문제점은 점증하는 국제화, 자유화, 개방화 및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대응태세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石油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石油의 안정적 공급문제는 시기를 불문하고 필수불가결한 문제임에도 '80년대 중반이후의 油價 안정세의 지속에 따라 석유소비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원유의 도입에 있어서도 현물시장을 선호하는 등 국내 석유류의 수급안정 노력이 헤이해지는 현상이 노출되고 있음은 심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며, 또한 소비자의 욕구도 점차 고급화, 다양화 되어가고 있어 석유류 수급문제는 더욱 중요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정유업체가 증질유 분해 설비 및 탈황시설의 설치 그리고 장거리 송유관망과 가스 배관망의 확충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소요재원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임을 감안할 때 동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외국 메이저의 진출 등이 예견되는 바, 메이저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영개선 노력 및 상류부문 진출, 대체에너지 개발 등 사업다각화를 통한 자체 체질강화

로 종합에너지 산업으로서의 국제화시대 대응이 요구된다 하겠다.

3 우리나라의 정유산업이 갖고 있는 가장 커다란 특징이자 문제점은 지나치리만치 견고한 과점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점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배경은 정유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장치산업이라는 점 및 정부의 허가제도 유지로 인해 신규참여가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정유산업의 현황은 정유사들이 자사의 정제능력에 미달하는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점과 신규로 증설되고 있는 각사의 정제능력을 감안하고 국내 석유제품 수요의 증가추세를 비교하면 신규정유사 참여는 국가경제적 측면에서 과잉투자 및 석유제품 수급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당분간은 지양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현재 정유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5개 정유사간의 경쟁요건 조성으로 현행의 견고한 과점상태 타파를 도모해야 하리라 생각된다. 석유제품은 그 특성상 거의 완전한 동질성으로 인하여 시장점유율의 성패여부는 유통구조의 확보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볼 수 있는데, 선발기업이 이미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후발정유사는 기존의 유통구조 접근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의 해결이 없는 정유산업의 자율화는 오히려 현재의 왜곡상태

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므로, 자율화의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유통구조 왜곡현상을 해결하여 건전한 경쟁여건을 조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

4 현행 油價관리제도는 원유도입단가 18.00\$/B를 기준으로 하여 석유류 제품가격을 결정하고, 실도입단가와 기준도입단가(18\$/B)의 차이를 석유사업기금으로 징수 및 보전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시 부과하는 기금의 징수는 석유제품의 유종별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정액의 기금부과로 석유제품 수출입의 비경제성 및 수급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때 유종간의 가치를 감안한 차등기금징수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油價정산제도의 유지에 있어서도 허용이윤 규모가 정유업체의 신규투자(중질유분해시설 및 탈황시설) 및 경영다각화(해의 유전개발 등)등을 추구하기에는 절대규모가 부족하며, 또한 업계의 경영개선에 의한 이익증가가 전액유가 및 기금으로 환수됨에 따른 경영개선 유인의 제공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현행 油價관리제도는 정유산업 전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하여 평균적 수익 및 비용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사간 손익구조의 왜곡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향후에는 일반 상업정제시설에 비하여 3배이상의 대규모 자본이 투자된

중질유 분해시설이 완공 가동되게 되면 일반 상업정제시설 부문과의 정산문제에 있어서 손익의 왜곡현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리라고 생각된다. 석유제품에 대한 수요의 경질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동시설의 건설이 필연적이라고 볼 때 동시설에 대한 투자요인의 제공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경제적 차원의 이익을 위해서도 동시설과 일반 상업정제시설의 분리 관리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5 두차례의 석유위기 이후 탈석유화 정책과 에너지 절약시책의 추진은 전반적인 석유수요의 증가를 둔화시켰으며, 이는 특히 산업 및 발전용 연료인 B-C油의 감소에서 기인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향상과 때맞춘 유가인하 조치등으로 석유소비의 고급화 현상은 가속되어 경질유 및 저유황 제품에 대한 수요의 증가가 석유류 소비의 증가를 주도하게 되었다. 즉 경질유제품에 대한 수요는 '88년에 15.4%, '89년에는 16%, 그리고 '90~'94년에는 평균 약 13.2%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중질유에 대한 수요는 약 8.2%의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석유류 수요에서 경질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86년 63.2%에서 89년 67.8%, '94년에는 약 72.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석유류 소비의 경질화와 함께 대기오염문제의 심각성 인식으로

정부는 저유황 제품에 대한 공급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가속되리라 본다.

이와 같은 石油수요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정부사로서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고 석유제품 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잉여중질유를 부족되는 경질유로 전환시키는 중질유분해시설 설치의 가속화 및 공해저감을 위한 탈황시설의 설치를 확대하여야 하며, 정부는 동시설들이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시설임을 인식하여 동시설에의 투자요인 조성을 위한 노력에 진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최근의 대내외적 사회여건의 변화로 인한 개방화 및 자율화의 요구는 경제자율화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으며, 이의 일환으로 석유산업의 자율화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 국제원유가 안정 및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국내유가 불안요인이 크게 감소되었고, 에너지절약 및 대체에너지 사용 등으로 석유의 존도가 감소하고 있으며 원유 비축능력 향상으로 공급의 안정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유가등 석유산업 관련 정부규제 위주의 정책에 대한 재평가 요구는 일응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석유가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볼 때 무분별하고 무조건적인 자율화의 추진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소비지정제

주의를 기초로 한 국내석유수급의 안정, 산업 및 민생 안정적 정책수단 그리고 급변하는 국제석유시황에 대응하는 국내석유시장에의 충격완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석유제품 유통구조에 있어서도 선발 정유사들에 의해서 유통구조가 선점되어 있는 상황에 비추어 자율화 이전에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근본적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은 국내 정유업체의 경쟁력이 외국의 대기업들과의 정면 대결에서 생존하리만치의 자생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석유산업의 자율화는 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과제임에는 틀림없으나, 국민경제적 차원에서의 다각적 고려를 통해 정유산업 자유화라는 소극적 차원이 아닌 경제발전이라는 적극적 차원에서의 추진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7 日本의 경우는 정유산업이 이미 사양산업으로 기울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다르다. 日本의 1인당 石油소비량은 지난 '73년의 18.3배럴에서 '88년에는 14.2배럴로 그리고 2010년에는 12.6배럴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73년에 2.7배럴, '88년에는 6.0배럴, 2010년에는 11.4배럴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석유산업이 성장할 여지는 아직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은 정부의 정책변화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 만큼 현재 사회전반에 만연되고 있는 개방화, 자율화의 영향을 받아 머지않은 장래에 점진적이거나 자율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가격 및 수출입에 대한 자율화가 추진되어 사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나아가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현재의 국내석유산업 현실로는 안정적인 제품공급 패턴을 붕괴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업계는 상류부문 진출 및 석유화학업계 진출 등의 경영 다각화에 전력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즉 해외유전 개발이나 해외지사의 설립을 통한 수직적인 기업경영 다각화와 경질화, 다양화되어가고 있는 석유소비 추세에 부응하는 설비투자의 확대, 그리고 석유화학업으로의 진출 등 다양한 사업영역의 확대에 기업체질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李 紀 勳 (中央經濟新聞 기자)

1 '90년대 국제석유시장은 대체로 안정기로 본다.

'70년대를 급등기, '80년대를 反落期라면 '90년대는 조정기로서

안정국면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완만한 油價상승세는 예상된다. 최근 油價급등은 단기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 석유전문가들 가운데 '90년대 중반경에 유가가 재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는 '92~'93년경에 파동이 온다는 전망까지 있다. 그러나 갈수록 油價재반등 시기를 '90년대 후반쪽으로 늦춰잡는 사람이 늘고 있고, 유가가 오르더라도 오일쇼크와 같이 충격적일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다.

이처럼 낙관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세계석유시장이 공급과잉이란 점 이외에도 두차례 오일쇼크의 경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을 들 수 있다. '90년대에는 산유국들의 下流부문진출과 아울러 제품수출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

2 개방화, 국제화, 자율화 및 소비자욕구다양화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시설고도화, 국제경쟁력 확보, 석유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수직적 계열화 나아가 종합에너지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90년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시설고도화는 소비자욕구의 다양화, 수요의 경질화·고급화, 환경오염개선 등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脫黃重質油 分解施設뿐만 아니라 더욱 복합고급정제시설을 갖추어 高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시장개방, 신규참입허용 등에 대비해 국내정유산업의 경쟁력확보도 시급하

다. 또 국내석유산업도 정제부문을 탈피, 석유개발, 생산쪽으로 또 주유소 등 유통부문으로 확대 완전계열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석유산업은 장기적으로는 석유생산·정제·판매 뿐 아니라 석유화학, 석탄, 대체에너지, 환경 등 에너지관련 전부문을 취급하는 종합에너지산업으로 발돋움해야 할 것이다.

3 공정한 경쟁체제가 확립돼 있지 못한 점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국내석유산업은 정부가 신규참입을 막고, 油價를 관리하는 보호틀속에서 기껏해야 5社간의 離合集散式 경쟁에 불과했다. 또한 對 政府관계를 여하히 하느냐에 따라 경영의 成敗가 좌우돼 왔다. 이제 국내석유시장도 幼稚단계를 벗어났고, 더 이상 신규참입을 막기도 어렵게 되고 있으며 국제화는 불가피한 추세다. 소비자욕구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 국제화, 개방화, 자율화추세에 맞추어 석유산업은 더 이상 안주하지 말고 공정한 경쟁을 벌여야 한다. 기술개발, 경영혁신, 품질향상이 성과를 가름하는 경쟁체제를 확립하고, 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으리라 본다.

4 현행 유가관리제도는 문제가 몇 가지 있다. 경제자율화를 해친다, 민간부문 손익을 정부가 재단함으로써 비효율이 초래되고 소비자이익을 저해할 수가 있다. 정부가 정유사

손익을 평가하는 데는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따른다. 정제부문만 때때 비용을 계산하기도 어렵다. 또 정유사의 과도한 비용전가현상이나 유종간 가격구조의 왜곡, 수급상 차질을 초래하기도 했다. 5사 평균개념은 1개사의 이익이나 손실이 전가되는 불합리를 낳고 있다. 또 당해년도 결산 이후의 사후정산제도는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인다. 따라서 유가관리제도는 근본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본다. 당장은 무리겠지만 현재의 5사 평균비용방식은 표준정제비 방식의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정유사들의 가장 큰 불만인 對주유소판매장려금의 비용부인정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5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을 싸게, 제때에 쓰기를 원한다. 따라서 우선 주유소가 많아져야 할 것이다. 주유소의 상표표시제도(Pole-Sign)도 빨리 실시돼야 한다. 정유사간 경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와야 한다. 그러려면 정유업계의 유통참여도 허용돼야 한다. 등·경유배달조직도 늘리고, 배달용기도 규격화해야 한다. 석유제품가격도 현재와 같은 담합상태를 탈피해야 소비자이익이 향상될 것이다. 탈황, 분해시설 등 시설고도화를 앞당겨 환경개선에도 이바지해야 한다.

6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다. 석유산업을 둘러싼 정부의 각종 규제제도는 실질적으로 완화·철폐돼야 한다. 자율화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자율화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나, 이 때문에 실질적인 규제완화는 지연되고 있으며, 그나마 나오는 조치들도 알맹이는 없다. 정부가 굳이 권 칼자루를 놓치 않겠다는 생각인데다 업계도 현재의 보호망을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석유산업 자율화는 유통면에서 석유제품수출입규제 해제, 국내 유통구조 진입제한철폐 등의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고, 나아가

정유업의 신규참여도 허용돼야 한다. 또 현행 유가관리제도도 폐지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이 선행돼야 조만간 닥칠 국내 시장개방, 국제화시대에 우리 석유산업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7 개척의 여지가 많은 황금어장이라고 본다. 석유류 제품에 대한 수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증대되고 있고, 석유제품을 원료로 한 석유화학산업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석유개발·생산부문도 아직은 미개척분야고 유통부문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석유뿐만 아니라, 가스, 석탄, 대체에너지, 석유화학, 환경등 종합에너지산업으로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다만 석유산업의 자율화에 따라 국내의 시장개방, 신규참입 허용 등으로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이 최대의 시련이 될 전망이다. ♣

□ 석유의 이해 □

등 유

등유는 석유제품 가운데서 가장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것으로 대부분 등화용연료로 이용되어 왔다. 현재는 등유의 용도가 조명용은 거의 없고, 풍로, 스토브용 등 가정난방 및 취사용 연료로 가장 많이 쓰이며, 石油 발동기용, 溶劑등에도 사용된다.

등유는 휘발유에 이어 유출되는 유분으로 그 비등점 범위는 섭씨160~300정도이며, 풍로용, 동력용, 용제 등으로 성상은 각 용도에 따라 다르다.

• 가정용 등유

가정용 등유는 주로 가정난방용 연료로서 등유수요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등유에 요구되는 품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① 완전연소하기에 충분한 휘발성을 지닐 것.
- ② 취급상 안전한 정도로 인화점이 높을 것
- ③ 殘燻性 성분이 적고 연소성이 좋을 것.
- ④ 부식성물질이 적고 자극적인 냄새가 없을 것.

• 동력용 등유

근년에 들어 현저하게 늘어난 등유의 용도는 농업용 발동기의 연료이다. 농업용 발동기는 전기화학식엔진으로 구조가 비교적 간단하고 소형경량으로 운반·설치가 편리해 농업용 동력으로 농촌에 보급되고 있다.

동력용 등유에 요구되는 품질은 다음과 같다.

- ① 휘발성이 높고 완전연소하기 위해 비등점이 너무 높지 않을 것.
- ② 연료소비량과 출력면에서 低 비등점 유분이 너무 많지 않을 것.
- ③ 윤활유의 회석을 방지하기 위해 未연소油 가 되는 高비등점 유분이 적을 것.

• 기타 등유

등유는 이밖에 세척용, 또는 용매로도 널리 이용되며, 페인트와 니스의 용매, 살충제, 농약유제등의 용매나 커트백 아스팔트의 회석제로서 이용된다.